

여성포럼.
9. 8.

1991

여성포럼

사적인 여성-영광한 아내

표지/박영숙
신민당부총재

“정치, 여성적시각 가미는 필수”

포럼시각

유고사태와 세계의 변화
민자, 좁혀지는 대권주자

파부물가 천정, 정비구나 구멍난 경제
소련·동구 예술단체 국내공연의 허와실
교통단속, 손님맞이식 딱지짜기

다시보는 고전소설 속의 여인

열녀춘향은 음녀였다

도덕과 인습의 희생양 된
신여성

나혜석의
예술세계, 남성편력

유통시장개방 소비자 설문조사

여성, 외국가전제품 무조건 선호

신설 6개 증권사 주가전망

하반기, 이런 주식 시면 돈 번다

대학합격시킨 엄마들이 말하는

수험생, 여름철 건강관리

백화점 품질과 똑같은 의류

주부가 선택한 「남대문패션」

남녀구분없는 동등한 사회건설 위해 정치적 힘과 뒷받침이 중요

자유·평등·평화의 원칙에 입각, 형평의 원리가 조화된 사회를 위해 여성으로서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박영숙(60·국회 보사분과·신민당 부총재)의원을 만났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 박 의원은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녹색의 전화」를 개설, 지금까지 실적 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유도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관심은 박 의원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세심한

박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실질적인 활동의 시대를 예견할 때 무슨일이든 서둘러 해결하기 보다 일정한 기간을 설정, 치밀한 계획으로 알뜰하게 내일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 이란다.



커버스토리/국회의원 박영숙

반응을 보였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해 왔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의정활동 이전, YWCA를 통한 30여년 가량의 여성운동가로 활동해 온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문제는 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생명중시 위주의 사고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여유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여성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도 환경보존에 따른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온 박의원은 오늘날의 정치는 삶

삶의 조건 만들어 나가는 정치풍토 위해 여성적 시각가미는 필수

글/윤정민 기자
사진/홍이석 기자

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 이같은 일은 여성적 시각이 가미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한다. 이와 더불어 박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운동 당시 주요과제로 여겨왔던 가족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 탁아법제정 등에 주력해 왔다. 이같은 법안들은 거개가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정치적 흐름(?)에 따라 알맹이를 뺀 상태에서 통과되어 미흡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안들을 합법화시키고 남녀구분 없는 동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정치적 힘과 뒷받침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여성의 힘을 정치세력화 해야

“여성의 힘을 정치세력화 하지 않는 한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출해야하고 여성들의 힘을 조직화, 세력화하여 깨끗하고 바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초, 광역의회의 선거를 통해 익히 느낀 것이지만 현재의 선거풍토속에 자유경쟁을 통한 여성의 정치진출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여성유권자들의 각성이 이루어져야겠지요.”

박의원의 지적은 곧 이미 진출한 여성정치인들이 당론에만 치우친 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나





박의원은 여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안들을 합법화시키고 남녀구분 없는 동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정치적 힘과 뒷받침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고 피력한다.

여성의 힘을 정치세력화하지 않는 한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출해야하고 여성들의 힘을 조직화, 세력화하여 깨끗하고 바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름의 창구역할을 해주면서 의회진출의 의미를 강조하고 깨닫게 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 연유에선지 박의원은 금번 지자제에서 얻어진 결과를 놓고 볼 때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유권자들의 의식면에서 굉장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러나 박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실질적인 활동의 시대를 예견할 때 무슨 일이든 서둘러 해결하기 보다 일정한 기간을 설정, 치밀한 계획으로 알뜰하게 내일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 이란다.

“예전과 달리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정치권으로서의 진출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이제는 전문가로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전문가, 농촌여성전문가 등등으로 말입니다. 더불어 그와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철저한 의식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 이것이야말로 향후여성정치시대를 열어 나가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박의원은 본격 여성정치 시대의 예고를 4년 후 쯤으로 예견한다. 즉 다가올 총선을 거쳐 새로운 기초, 광역의회 선거가 치러질 때는 뭔가가 달라도 달라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여성들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무대에는 적합치 않다는 것을 피력하는 동시

에 부패의 근원을 막을 수있는 제도적인 정치풍도가 마련돼야 함을 암시한다. 그런 면에서 박의원은 여성으로서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야당의 부총재로서 여성정책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의정생활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이전에 신경을 써왔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여겨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짜고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새삼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즈음 우리의 일상생활을 환경보존과 끈끈한 맥을 이어놓았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꾀해 왔던 지난 30여년간의 산업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켜왔고 무겁게 누적되어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공기, 물, 땅, 심지어는 혈액까지 오염이 된 상태에서 처음 환경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조금 낯설게 여겨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우선이 되고 그것을 위주로 개발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곧바로 이어짐을 염두에 둘 때 박의원은 환경문제를 의정활동에 부과된 일의 하나라 여기기보다 국가의 대계를 이어나가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과제로 여기고 있다. 1천5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식수로 사용되는 팔당호 주변에서 골

재채취를 하는 일이나 알박한 이익 때문에 공해사업을 수입하는 등의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요소임은 틀림이 없다.

한국 최초의 야당 여성부총재로서 여성정책에 남다른 노력 기울여

이러한 맥락을 놓고 볼 때 박의원은 여성으로 생명중시의 사고를 우선적으로 적용,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행정부의 환경보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여성들이 먼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노력 일선에 나서야 한다.

항상 약자편에서 일을 하면서 뒤쳐진 것은 치켜올리고 너무 앞서 있는 것은 잠시 제자리 걸음을 시켜 조화된 형평의 원리가 통하는 사회를 위해 애써왔던 박의원은 조선의원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감안, 남들보다 배이상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최초의 야당 여성 부총재라는 위치에서 어느 때보다 여성을 위한 정책적 일에 관심과 연구,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 그에 관한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여성이 적응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그에 반한 정책적 배려가 적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여성

모든 사회활동에 입각해서 볼 때 여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안 마련이 되지 않는 한 지금의 정치, 사회풍토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여성의 정치권으로의 진출은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은 여성유권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 조직화운동이 시급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얼마전 치뤄진 기초, 광역의회의 결과에서 보았듯 제아무리 금권이 난무하지 않는 선거풍토를 만들어 나간다고는 하지만 가진자의 횡포는 여전히 난무했다는 뒷이야기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제도는 깨끗한 한국의 정치마당, 올바른 사회를 영위하는 기반을 굳히기까지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사회활동에 입각해서 볼 때 여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안 마련이 되지 않은 한 지금의 정치, 사회풍토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여성의 정치권으로의 진출은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은 여성유권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대표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이익집단으로서 우리의 힘을 조직화, 세력화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된 내일의 한국사회 건설위해 여성의 정치참여와 활동은 필수

결국 여성이 원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박의원은 그런점에서 이미 의정단상에 진출한 선배로서 후배들과 힘을 합해 독자적인 여성정치단체를 조직하여 여성의 힘을 조직화, 세력화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 우선적인 작업의 하나로 지난 기초, 광역의회에 출마, 낙선한 여성정치인들의 모임을 통해 지난번의 경험을 통한 여러가지 안전들을 놓고 향후 정치권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치밀히 세워 두번다시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할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어찌되었건 여성으로서 찾아야 할 자리, 서야 할 위치를 파악하고 정치권에 진출, 오늘의 여성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하기 보다 내일을 위한 참 여성활동을 위해 기존의 높은 벽을 허물고 다각적인 활동을 펴는 박의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앞선 안목은 발전된 내일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박의원의 말처럼 자유, 평등, 평화에 입각, 조화된 형평의 원리가 통하는 사회 건설은 우리가 늘 비교해 왔던 선진국(?)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를 수 있고 우리가 다함께 그 혜택 속에서 윤택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w.f